

생명의 말씀

자유 (사 61:1)



정기영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사 61:1)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눅 4:14에 예수님이 갈릴리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든 자를 고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주 사역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본질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한 것은 상처 입은 마음이 아니라 이담의 죄악 된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은 내적 자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된 본성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막 7:20 이하에서 상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롬 6:5 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몸이 있기에 죄의 종, 죄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 수 없게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

먼저 음란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는 온갖 종류의 음란물과, 받아 되면 tv를 틀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인방에서 음란물이 방송되고 있으며, 예술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들어내는 등 온갖 음란 문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전들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이런 음란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다음 탐욕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남편의 눈을 바늘로 찔러 소경으로 만들어 죽게 한 다음 보험금을 타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끼 엄마가 소독하지 않은 물을 먹여 아이가 장염에 걸리게 하여 보험금을 타고 그 아이가 죽자 다른 아이를 입양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장염들게 해서 보험금을 타고 그 아이가 죽게 됨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짜 간장, 가짜 참기름, 석회가 든 두부, 가짜 돼지고기를 만들어 사람이 먹으면 병이 들게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등 지금 세상은 돈이 된다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심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경고합니다. 담전 6:9 이하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잠 21:6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구하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합니다. 돈의 미혹을 받음으로 믿음에서 떠나 결국은 파국되고 죽음이 이르며 마지막은 멸망이라 합니다.

눅 16:13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재물을 귀히 여기

면 하나님을 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귀히 여기면 탐욕심이 그를 우습게 보지만 돈을 함부로 여기면 탐욕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교회가 크나 작으나 돈을 귀히 여기면 그 교회는 탐욕에게 사로잡히지만 돈을 함부로 여기면 탐욕이 그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은 잘 다뤄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복이 땅의 복을 의미하지만 물질의 포로된 자는 이처럼 위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성경구절을 찾아보았지만 사람들은 음란과 탐욕과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사람을 죄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자유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포로가 되어 있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 겁니다. 에베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음란이나 탐욕에 포로가 있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유케 되었습니까? 요 8:31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십니다. 말씀에 거한다 하는 것은 말씀 따라 살 것을 결심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겔 36:25 이하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

이 임하시고 상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죄의 포로에서 참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눅 10:19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어야 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 속에 술 마귀가 있으면 술의 포로에서 못 벗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술 마귀를 쫓아내면 그 사람은 술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사람 속에 음란한 영이 있으면 음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음란의 영을 쫓아내면 그 사람은 음란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역사를 끊게 되면 그 모든 마귀의 포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자유케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본질은 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정

한동대, 법률사무 종사기관 지정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가 대구·경북 지역 대학 최초로 법무부로부터 법률사무 종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법률사무

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를 익히기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이다. 이를 계기로 대구·경북 등 지역 인재들이 전문 법률 실무를 익힐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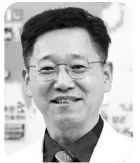
'전국순회 실버처치 세미나' 개최



기독교선교단체인 하이미션대표 윤인규 목사는 제2회 '전국 순회 실버처치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시작해 부산·경상지역 4월3일, 대전·충청지역 4월7일, 전주와 전라지역 4월 9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선교회 회장에 조원인



한국기독교의료선교회는 지난달 제52차 정기총회에서 조원인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임기 2년의 신임회장에 선출된

그는 "82개 회원 단체 연합운동의 중심인 의선협 회장을 맡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의료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라는 협회 사명을 위해 충성하겠다"고 말했다.

중독예방기독교연합 출범



우리사회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독예방기독교연합'이 지난 2월 10일 (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엔에스 대표변호사는 개회사에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중독'이다. 크리스천들은 모든 중독과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평

한국교회연론회

정치가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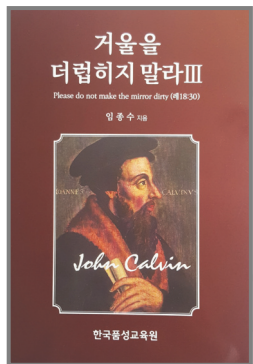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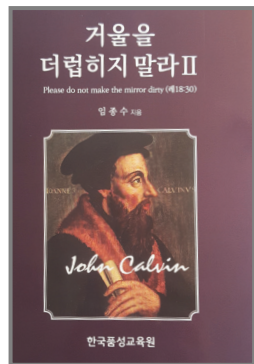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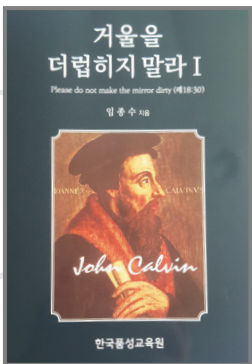
현 여당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15총선을 거론하면서, '종교가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현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시장과 언론, 검찰의 개혁 등을 주장해 온 것은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패권의 재편(再編)에 종교를 집어넣은 것은 매우 이해적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종교는 정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존제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 종교가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지 않는다고 재편을 거론하는 것도 민주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독재주의나 공산주의 밖에 없다. 그런데 막강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노골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계획을 짜놓고 있다는 반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다. 안하무인이다. 도대체 세속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해지려는가? 이는 이 정

부와 여당이 얼마나 기독교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느냐가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여기에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가 분명하다. 왜냐하면, 현 한기총 대표회장을 거명했기 때문이다) 물론 한기총이나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 그의 행태에 대하여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다. 그렇다고 정치가가 종교 지도자를 거명하면서, '종교 재편'을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를 한껏 얹잡아 본 것이다. 종교(기독교) 재편은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 투표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수많은 인물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말로(休路)를 보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의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의 말로는 비참하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한국기독교를 어떻게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명백하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며 망발이다. 이 발언에 대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들은

한국기독교에 사과해야 한다. 이것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이는 '정교분리'를 스스로 깨겠다는 교단이며, 월권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듣지 않는다면, 자신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 지도자로서 신앙인의 자격도, 정치 지도자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4·15총선은 기독교를 재편하려는 것이 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몰락처럼 여당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